

포장기술사회 확고한 위상제고 위해 매진

홍보활동 및 새로운 사업 발굴 추진



공재홍

(사)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

(사)한국포장기술사회는 지난 달 23일 노보텔엠버서더 호텔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갖고 제4기 신임회장을 선출하였다. 국내 최고 포장국가기술자격인 포장기술사들을 3년간 새롭게 이끌어 나갈 주인공은 바로 (사)한국포장협회 공재홍 전무이사.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신임회장으로 선임된 공재홍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보았다.

“제1기 회장단은 기술사회 창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여 오늘의 포장기술사회를 있게 한 공로가 지대하고, 제2대 회장단은 기술사회의 기틀을 잡고 나아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3기 회장단은 본격적인 기술사회의 사업을 다방면으로 펼쳤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선대 회장단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기초로 하여 우리 포장기술사회의 확고한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대 회장단들이 이룩해 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공재홍 회장은 포장기술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기술사회의 각종 사업들을 정부 및 관련 단체, 연구기관, 업계, 또는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홍보하여 그 인지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재홍 회장은 고려대 이공대학을 졸업한 후 지난 71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입사한 뒤 포장개발부로 전보하면서 86년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골판지

포장공업 실태조사, 농산물 포장규격 개발, 건조 식품의 Shelf-life 측정연구 발표, 군수품 포장개발 연구, 감귤 컨테이너 수송시스템 연구, 채소류 Prepackaging 연구발표, 아시아/태평양지역 수공업품 수출포장연구, 해외 농수산물 유통 및 포장실태조사 등을 하며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매진해 온 관록 있는 인물이다. 또한 포장개발부 수석연구원과 교육 연수부장, 진흥부장을 끝으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을 퇴사한 공 회장은 지난 94년 월간 포장산업 포장산업연구소에서 영문판 'Packaging Korea' 창간 및 포장용어 사전을 발간했다. 현재 공재홍 회장은 96년부터 (사)한국포장협회 상근 전무이사를 맡고 있다.

이와관련 (사)한국포장협회의 상근 전무이사직과 포장기술사회 회장직을 동시에 맡게 된 공재홍 회장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포장협회 상근 전무이사가 포장기술사회 회장을 역임한다면 기술사회를 상대적으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의 시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이에 대해 공 회장은 "이러한 오해 때문에 회장직을 고사한 바도 있었다"며 "그러나 협회는 관련 기업체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반면 기술사회는 개인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특성과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협회와 기술사회 두 단체에 한치의 치우침이 없이 사업들을 수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 공 회장은 "우려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다.

현재 포장기술사회는 포장기술사 직무의 진보, 개선 및 포장기술사의 품위 보전과 기술향상

을 도모하며 기술사의 직무 수행능력을 개발 증대하고 해외 포장기술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가 포장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회원들은 금년 5월까지 70여명에 이르며 국내 포장산업 최고의 기술진들이 포진하고 있다.

공 회장은 "포장기술사회는 포장 및 물류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교육, 훈련, 지도, 정보 수집, 교류라든지 행정관청 및 공공기관의 위탁 업무 수행, 정부 정책의 심의, 건의 등과 포장 및 물류 기술의 조사, 진단, 판단, 중재, 유권 해석 등의 역할은 물론 각종 학술활동 등을 수행하는 단체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 회장은 각종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며 기술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홍보활동과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 회장은 "국내 포장산업의 근간이 되는 각종 포장 소재들이 중국을 위시한 개발도상국들이 저가공세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 침투되고 있어 기존의 소재업체들의 어려움은 물론 국내 포장산업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각자의 이기심을 버리고 과당경쟁 지양, 정보 공유 등으로 공생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으로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35년간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을 바쳐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재홍 회장.

국내 최고 포장기술인 인재들을 이끄는 만큼 그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

이한열 기자